

# 사역 보고 및 전략 계획서

수신자 : 신림제일교회 당회 및 선교 위원회

보고자 : 주준성 선교사

## I. 서언: '편안한 안주'가 아닌 '치열한 재배치'를 선택하며

선교사가 선교 현장을 떠나 국내로 들어올 때, 많은 이들은 그것을 '사역의 마무리' 혹은 '대형 교회에서의 안락한 준비'로 보곤 합니다. 그러나 저에게 이번 한국 필드로의 전환은 **24년 알바니아 현장 사역**과 그 이전 **7년의 선교 전문 행정 경험**을 하나로 묶어 한국 교회와 세계 선교를 잇는 '가장 전략적 요충지'로 나아가는 순종의 발걸음입니다.

제가 60대 중반을 넘어 육체적 한계에 부딪히기 전, 아직 젊고 기동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바로 지금이 한국 교회의 선교 운동을 다시 일으키고 다음 세대 선교사를 훈련시킬 '골든 타임'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 II. 지난 3개년 사역 성찰 및 평가 (2023년 - 2025년)

### 1. 알바니아 24년 사역의 완결과 '무소유의 증명' (2001년 알바니아 정착)

- 리더십의 완전한 이양:** 라크나스 은혜교회의 건축과 정착을 마무리하며, 어떠한 기득권도 남기지 않고 현지인들에게 모든 것을 이양했습니다. 이는 알바니아의 동료 선교사들과 현지인들이 저의 사역이 '소유'가 아닌 '존재'에 있었음을 증명해 주는 열매입니다.
- 책임 있는 마무리:** 건축 과정에서 남은 건축 비용 부채를 끝까지 책임지며 한국으로 온 것은, 사역지에서의 신뢰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후원 중단이나 인식 부족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지켜야 했던 선교사의 자존심이었습니다.(다만, 초기 토지 구입비는 저희 가정의 부채로 남아 있습니다.)

### 2. 한국 필드(Saejungang Base)에서의 사역 시작 (2025)

- 행정적 기반 구축:** 국내 대표적인 선교적 교회로 새중앙교회라는 든든한 사역의 기반을 통해 한국 교회를 통한 선교 사역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동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 사역 철학의 내실화:** 선교사 멤버케어, 이주민 예배 사역, 선교 훈련 등을 기획하고 섬기면서, 이전 선교 경험을 통한 하나님 앞에서의 저만의 '나다움(Being)'을 통한 국내 사역의 영적 토대를 굳혔습니다.

## III. 향후 2개년 사역 전략 계획 (2026년 - 2027년)

### 1. 31년의 노하우를 녹여낸 '선교사 훈련 및 동원' (2026)

- 선교학교 운영 및 고도화:** 현장(24년)과 행정(7년)의 경험이 융합된 커리큘럼으로, 체계적인 선교 행정과 함께 실질적인 선교 훈련과 선교사 케어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 AI/데이터 기반 선교 시스템:** 단순히 '감'으로 하는 선교가 아닌, 다영한 이전의 선교 경험과 함께 시대적인 디지털 기술(AI, Power BI)을 활용해 선교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관리하는 모델로 성장시켜 가겠습니다.

## 2. 한국 교회의 선교적 야성 회복 (2027)

- ‘미개척지’인 국내 선교 동원 사역: 국내 선교 행정가는 선교사들조차 기피하는 외롭고 힘든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 사역이 없으면 현장 선교사들은 고립됩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다시금 세계 선교의 동력을 얻도록 전방과 후방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 다음 세대 선교 리더십 발굴: 청년들과 MK(선교사 자녀)들이 선교적 정체성을 갖고 일어날 수 있도록 전문 멘토링과 네트워크를 확장하겠습니다.

## IV. 마무리 : 나를 증명하는 것은 ‘경험’과 ‘헌신’입니다

제가 새중앙교회라는 기반을 선택한 것은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곳은 한국 교회를 깨우고 선교적 에너지를 결집하기 위한 가장 최적의 ‘전략적 베이스캠프’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교회가 간곡히 이 일을 섬겨줄 것을 먼저 제게 요청하였고, 후원 단절과 오해 섞인 시선을 예상했음에도 이 길을 선택한 이유는, 이 사역이 한국 선교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임을 지난 31년의 선교 사역 여정이 증명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알바니아 동료들이 저의 진정성을 신뢰하듯, 신림제일교회의 당회와 모든 성도들이 저를 ‘현장을 은퇴한 선교사’가 아닌 ‘한국 교회를 선교 현장으로 바꾸어가는 현장 사역자’로 믿어주시고 이 거룩한 동원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기도 제목]

1. 섬기는 교회를 통하여, 한국 선교를 일깨우는 강력한 베이스캠프가 되도록.
2. 오랜 시간동안 선교 행정과 사역 경험이 헛되지 않게 현장 선교사들과 다음 세대 선교사들에게 온전히 전수되도록.
3. 알바니아에 남은 건축 부채(토지 구입비)가 속히 상환되어 현지 사역에 걸림돌이 없도록.